

존엄과 공존이 실현되는 평등인천으로!

2020.3.25.(수).13:00 인천시청 본관 앞

진행순서

- 사회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구성원 모두발언
문지혜 녹색당 인천시당
주솔현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김돈희 인천나눔의집
박순남 인천사람연대
강선자 인천여성민우회
안경민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올라 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이혜연
- 연대발언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출범선언문 낭독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녹색당 인천시당, 민주노총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이혜연,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나눔의집,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소모임 인페르노, 한국이주인권센터, 조혜연

· 연대발언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지난 2017년 3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촛불 이후 평등한 사회를 열망하는 10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들의 열의를 담아 재출범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과 함께 평등에 대한 가치를 우리 사회 곳곳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차제연은 지난 몇해 동안 반차별운동의 여러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집회와 행진등을 벌이며 평등의 주체가 되려는 대중의 힘을 조직했고, 전국 각 지역 내 차별금지법제정 등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촉진 하여 운동을 확장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전국 각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제정과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과 조직등의 활동입니다. 인천을 포함한 대구 경북,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울산, 광주 등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제정과 혐오에 차별에 반대하는 대응하는 단위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며, 힘을 모아 대항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제1회인천퀴어문화축제에 발생했던 혐오세력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은 이후에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 인천이 평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2019년 제2회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작년 한해 전국 각지역에서 인권조례 성평등 조례 제정이 움직임이 철회 또는 개악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각 지역 차제연이나 인권운동진영 및 시민사회는 좀 더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힘써야 할 것 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은 타인의 소수자 특성을 비난하고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차이를 알아가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그 속에 차별과 혐오 폭력은 절대 같이 할 수 없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인천 차제연의 출범은 각 지역에서 혐오 차별에 맞서며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운동의 역사와 같이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에서 조직의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준비모임 활동을 통해 반차별운동의 기존의 논의와 지금 고민해야할 것들을 두루 살피는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의 인천 차제연의 활동에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출범식 이후에 인천 차제연이 인천 지역 단위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차별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좀더 다양한 단위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제연은 올해 총선이후 차별금지법의 이야기를 세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정의 필요성 만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도대체 어떤 법이고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요구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등 실제적인 법안의 쟁점을 좀 더 알려면서 논의 흐름을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 이후 법안을 구체화하고 알려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제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 이후 반차별 활동가 캠프, 9월에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평등행진을 조직하여 다각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는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의 그 시작을 인천 차제연의 출범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 뜻깊습니다.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구성원 모두발언 내용

문지혜 녹색당 인천시당

존엄과 공존이 실현되는 평등인천으로의 시작을 알린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즐기며 타협하지 않는 정당 녹색당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천지역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만들어지길 바래왔던 소원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존엄과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나중으로 미루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과 함께 우리는 외칩니다. 우리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등 향한 외침은 결코 “소모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실천합시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더 많은 지역의 단체들과 활동가,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평등인천을 만들 결단과 실천을 우리 지금 함께 합시다. 녹색당도 더이상 타협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정치, 다양성 정치를 실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술현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드디어 인천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법 제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천을,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평등 사회로 만들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종, 언어, 출신, 성별, 성지향성, 계급, 장애, 나이 등등에 따라 각자의 이야기와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사람들에게 획일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시키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쓸모있다’고 판단한 몇몇만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주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신호탄입니다. 이것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는 차별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을 만큼 내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차별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으로 규정되는 사람들, 효율과 이윤 극대화만을 위한 노동, 전염병에 더 취약한 계층, 같은 지구 안에서 착취되는 비인간 생물, 착취와 상품화의 대상인 몸들. 우리는 인천 차제연 활동을 통해 이것이 당연한 인간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의 변혁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차이를 힘으로’ 만들어 냅시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렇기에 사회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량희 인권운동공간 활

사람들을 줄세워 서열화하거나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에서 비참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비참 속에서도 용기있는 목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들과 그들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참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든 경계선을 의심하고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혹은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희미해져가는 목소리를 붙잡고 뒷걸음질로 물러서려는 발걸음을 불러 세우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삶을 만들 것입니다. 고유한 삶이 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우리는 서로의 삶의 지지대가 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서로를 횡단하면서 평등의 땅을 단단하게 다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인천시민들과 함께 평등을 외칠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오늘이 기쁘고 설레입니다. 이 마음과 목소리가 더욱 커져 인천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차별과 혐오를 밀어낸 자리에 존엄과 공존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 미래는 차별금지법제정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김돈희 인천나눔의집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누구 하나도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하느님 당신의 모습을 닮아 모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따뜻한 봄날이면 이곳저곳에서 아름답게 핀 꽃들을 보게 되지요. 어떤 꽃은 파랗고, 어떤 꽃은 노랗고 또 어떤 꽃은 빨갛습니다. 파란 꽃이 노란꽃을 향해 너는 왜 노랗냐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노란꽃도 빨간 꽃을 향해 너는 왜 빨간색이냐며 나무라지 않습니다. 꽃은 그렇게 서로 다르기에 아름답고 하느님은 그렇게 자연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어떤 누구도 꽃없이 자란 나무를 잘라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푸른 나무는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며 다른 나무들과 어울려 자연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한냥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차별에도 당당히 맞서며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는 결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순남 인천사람연대

강선자 인천여성민우회

안경민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오늘 발족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차별을 차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차별이 어디있어 라던가, 혹은 이견 역차별이야 하는 식으로만 차별이 존재합니다. 또는 '혐오할 권리를 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숨쉬면서, 생활하는동안 차별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 차별을 차별로 받아들이고,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등해야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올라 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goernment and the Korean people for their efforts in protecting and preventing the people from Covid 19 virus.

I don't know how to begin and whether I have the right words or statements to express my self, however I will try my best. and I hope I can express.

Today I would speak about the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I would focus on some point of discrimination specially for migrants and refugees.

Discrimination in house rental agencies. Most Koreans don't want to rent their houses to foreigners specially who have children.

Discrimination in hospital. Patients who cannot speak Korean hard to get translation so cannot get appropriate treatment

Discrimination when looking for job. Foreigners hard to get chance of job.

Discrimintaion in work place. because foreigners don't know the labour law well, the boss takes benefit of this.

Discrimination in Government services. when Foreigners visit any government office to solve thier issues and problems, they don't give them chance to speak or even don't listen to our speaking.

This is what refugees and foreigner expierence in this country. so I think we want AntiDiscrimination Law

우선 코로나바이러스를 막으려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의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 기관의 차별. 대부분의 한국인은 특히 자녀가있는 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병원에서의 차별. 한국어를 구사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 할 때의 차별. 외국인들은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의 차별. 외국인들은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사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정부 서비스의 차별. 외국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방문 할 때, 그들은 말할 기회를 얻거나 심지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에서의 난민과 외국인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 금지법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연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살고 있는 성소수자 이혜연입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경계를 넘어 우리와 당신이 다르지 않다라는 평등의 말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인천은 그동안 인권에 대한 오명이 많았습니다. 인권조례의 제정이 계속 미뤄지며 인권불모지라는 오명을 얻었고, 18년도 9월 8일에 있었던 인천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혐오범죄는 인천이 혐오세력의 온상지라는 이야기를 듣게 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무력한 공권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폭력 이후, 많은 것을 바꾸어 냈습니다. 인천에도 드디어 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오늘을 지역의 반차별운동을 이끌어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족하는 등 지역의 반차별운동을 위해 힘써온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제정된 인권조례는 시장의 의무가 축소되는 등 빈약한 점이 많고,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결집한 것 처럼 혐오세력도 결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차별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는 앞서 장종인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공중파 방송인 PD수첩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차별문제를 한 꼭지로 방송을 했습니다. 약 15분 쯤 지난 이후부터 인천퀴어문화축제때의 상황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례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차별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톺아내었다는 것이 유의미한 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혐오의 온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저의 삶의 주된 터전이었던 동인천역 북광장은 저에게는 혐오폭력으로 얼룩진 기억이 되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는 갈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리를 끊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이제는 존엄과 평등이 존재하는, 평등의 땅으로 다져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만의 힘이 아닌 개인의 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있는, 삶의 터전인 이 땅이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두루 만들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뛰어넘어, 우리 지역의 평등의 기운을 환기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엄과 공존이 실현되는 평등인천으로!

오늘 우리는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출발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전제이며,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넘어 평등의 장을 만드는 반차별 운동으로 이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혐오와 차별이 날마다 정점을 찍고 있다는 지금, 인권의 불모지라는 이 곳 인천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과연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라는 인권에 양보와 자격 그리고 유보의 ‘나중에’가 있을 수 있는가.

이 사회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정체성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조건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등이 없이는 단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 이는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눈에 보이는 차별 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서 매 순간 무엇이 사회적으로 숨겨지고 있는 지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어떤 사회구조가 차별을 날로 견고하게 만드는지 놓치지 않는 것, 다른 이의 삶과 이를 유지하는 감정들에 대한 태도가 진정한 존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 단 하나의 답이 아닌 다양한 차이만큼이나 수많은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나란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답이 아니다. 그저 당장의 안도감을 위해 유보하는 존재들을 만들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등이 곧 나의 평등이라는 신뢰와 가능성이 진정한 안전이 아닌가. 불확실한 삶들을 평등한 동료시민됨으로 넘어서는 순간, 그 순간들이 나의 존엄을 우리의 존엄으로, 공존의 시간으로 이끈다.

차별금지법은 개개의 행동을 규제하는 장치를 넘어 평등과 차별의 감각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관계의 전환과 함께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시작이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특정사유를 골라내며 삭제했던 그 순간, 2013년 차별금지법안 철회의 그 순간, 삭제되고 유보되던 그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이들과 평등의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평등사회의 문을 여는 힘을 모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경계를 넘어 평등의 장으로 단 한사람도 놓치지 않고

2020.3. 25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별첨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구성과 계획**

1) 구성과 운영원칙

- 차별금지법제정운동과 반차별운동을 목적으로 공동활동을 펼칠 단위(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
- 전원회의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며, 소집과 진행주체는 구성단위들이 돌아가며 맡아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팀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네트워크체계(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참여단체이자 독립적인 네트워크)

2) 활동방향과 2020년 계획

(1)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인천지역에서의 활동과 전국연대

(2) 인천을 기반으로 한 활동

-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견 및 활동조직과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
: 인천시 조례(인천아뜰레, 인권조례관련, 학생인권조례 등), 인천시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대응 등
- 토론회, 강연 : 차별금지법 쟁점과 현안 (혐오발언, 가족구성권, 집회시위의 자유 등)
- 인천의 각 단위, 공동체 내 ‘차별잇수다’ 프로그램 제안 및 진행
: 차별잇수다 - 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잇는 수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일상의 차별을 비롯한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대항의 다양한 방법과 평등의 감각, 지지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
<https://sooda.campaigns.kr>
- 2020 총선대응
: 총선예비 후보들에게 혐오없는 평등선거 협약, 평등선언 제안 및 참여
: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제안
: 차별, 혐오 관련 모니터링(발언 및 인터넷활동과 정책, 홍보물 등)
- 인천차제연 내부 프로그램
: 차별잇수다를 비롯한 구성단위별 간담회
: 세미나과 사안별 워크숍